



1	문법 규정	형태론 - 용언의 활용	11	독해(비문학)	빈칸 추론
2	문법 규정	의미론 - 다의어	12	독해(문학)	현대 운문의 형식 이해
3	독해(화법)	공감적 대화	13	독해(비문학)	일반 추론 부정 발문
4	독해(비문학)	배열	14	독해(문학)	고전 산문의 내용 + 화법
5	어휘	한자	15	독해(작문)	표현하기
6	독해(문학)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16	독해(비문학)	일반 추론 부정 발문
7	문법 규정	통사론 - 올바른 표현	17	독해(문학)	고전 갈래에 대한 이론
8	독해(문학)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18	문법 규정	한글맞춤법 - 준말
9	독해(비문학)	일반 추론 부정 발문	19	문법 규정	통사론 - 문장 짜임새
10	독해(비문학)	일반 추론 긍정 발문	20	독해(비문학)	사례 추론

이번 국어 시험은 7급 공채 방식이 PSAT으로 전환되기에 앞서, 독해 추론 유형의 난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에서는 독해 문항 비율을 높이기는 했으나 난도를 높이지 못한 반면, 이번 7급은 내용일치 유형의 출제를 지양하고 일반 추론, 빈칸 추론, 사례 적용을 두루 출제하였습니다. 기존 유형을 출제한 것은 배열 정도인데 난도가 낮아 변별력은 없었습니다. 독해 문항 중에는 ‘공정성의 조건’을 다룬 지문이 PSAT 언어논리 유형에 가장 가까웠고, ‘공감적 대화’를 찾는 화법 유형과 표현 의도의 적절성을 묻는 작문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기출 문제들을 통해 단순 내용일치 훈련을 반복했던 수험생들은 답안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남은 지방직 7급 시험을 위해서는 일행직 기출 문항이 아니라 변화한 시험에 대비가 되는 수준 높은 독해 문제들을 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학에서는 <견회요>, <규중칠우쟁론기>, <여승>,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판소리 이론이 출제되었습니다. 고전 작품은 교과서 필수 작품이었으므로 내용 이해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시 문학은 수능형뿐만 아니라 내신형도 출제되니 교과서 필수작 정리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산문과 화법(말하기 방식을)을 병합한 유형은 앞으로도 확대될 유형이고 시의 표현상 특징 유형에서 ‘토속적’, ‘우회적’, ‘시간의 흐름’, ‘공감각’과 같은 개념어를 빠르게 찾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론 문법에서는 형태론에서 용언의 활용, 의미론에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구분이 출제되고, 통사론에서는 문장 성분의 호응을 점검하는 문제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의 구분이 출제되었습니다. 기존 기출 유형과 예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출제였습니다. 어문규정에서는 한글맞춤법의 준말 예시들과 표준어규정의 예시가 병합 출제되었는데 역시 기본서나 기출에서 빈번하게 보았을 전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문법 규정은 합격선 근처의 수험생들에게는 변별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는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한시의 현대어 풀이를 주고 부분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고르는 유형이었는데 자연물이나 계절을 뜻하는 낱자만 알아도 해결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문(문장 단위의 한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직·서울시 7급 시험까지 대략 2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번 국가직 시험으로 확인된 약점을 채우기에는 절대 모자란 시간이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유진 국어

박문각 남부고시 이유진 교수 2020 국가직 7급 국어(나책영)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강남중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우월한 문법규정,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독해,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어휘한자, 박문각
이유진 국어 독해알고리즘, 박문각
이유진 기출코드, 박문각
이유진 예상코드, 박문각
이유진 NEW 화제의 모의고사 시리즈
이유진 30일 매일 볼투모의고사
이유진 필사즉생 진전 모의고사
메가박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디딤돌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국문학과 국사의 입맞춤,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문 1. 밑줄 친 말이 불규칙 활용 용언이 아닌 것은?

- ① 카페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 ② 하늘이 맑고 파래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 ③ 그들은 자정에 이르러서야 집에 도착했다.
- ④ 외출할 때는 반드시 가스 밸브를 잠가야 한다.

★ 정답: ④ - 이론 문법 - 형태론 - 용언의 활용

★ 정답 해설:

‘잠가야’의 원형 ‘잠그다’는 ‘ㄹ’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어간 ‘잠그-’에 연결 어미 ‘-아야’가 붙어 ‘-ㄱ’가 탈락되었다. ‘ㄹ’ 규칙 활용은 어간의 모음 ‘-아’가 ‘-아-’로 시작되는 어미나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 앞에서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것이다.

★ 오답 해설:

- ① ‘흘렀다’의 원형 ‘흐르다’는 ‘르’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이다. 어간 ‘흐르-’에 모음 어미 ‘-었-’이 결합할 때 ‘르’가 ‘ㄹ르’로 바뀌는 ‘르’ 불규칙 활용이 일어났다.
- ② ‘파래’의 원형 ‘파랗다’는 ‘ㅎ’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이다. ‘파랗다’의 어간 ‘파랗-’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하여 어간의 일부인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변하였다.
- ③ ‘이르러서야’의 원형 ‘이르다’는 ‘르’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이다. ‘이르다’의 어간 ‘이르-’에 연결 어미 ‘-어서’와 보조사 ‘야’가 결합한 형태로, 어간과 연결 어미가 결합하면서 연결 어미의 ‘-어’가 ‘-러’로 바뀌었다. ‘르’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에 모음 어미 ‘-어’가 ‘-러’로 바뀌게 된다.

참고) 용언의 활용

구분	명칭	내용	용례	비고(규칙 활용)
어간 훼손	‘ㄷ’ 불규칙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묻[問] + 어 ⇒ 물어 신 + 어 ⇒ 실어	묻[埋] + 어 ⇒ 묻어 연 + 어 ⇒ 얻어
	‘ㅅ’ 불규칙	‘ㅅ’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	짓 + 어 ⇒ 지어 잇 + 어 ⇒ 이어	벗 + 어 ⇒ 벗어 셋 + 어 ⇒ 셋어
	‘ㅂ’ 불규칙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돕 + 어 ⇒ 도와 굽[炙] + 어 ⇒ 구워	잡 + 어 ⇒ 잡아 굽[曲] + 어 ⇒ 굽어
	‘르’ 불규칙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ㄹ르’로	빠르 + 어 ⇒ 빨라 누르 + 어 ⇒ 눌러	따르 + 어 ⇒ 따라 치르 + 어 ⇒ 치러
	‘우’ 불규칙	‘우’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	푸 + 어 ⇒ 퍼	주 + 어 ⇒ 주어/워

어미 훼손	‘리’ 불규칙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에 모음 어미 ‘어’가 ‘리’로	이르[至] + 어 ⇒ 이르러 누르[黃] + 어 ⇒ 누르러	치르 + 어 ⇒ 치러
	‘여’ 불규칙	어간이 ‘하’로 끝나는 용언에 모음 어미 ‘아’가 ‘여’로	하 + 아 ⇒ 하여	가 + 아 ⇒ 가
	‘오’ 불규칙	‘달-다-’의 명형 어미가 ‘오’로	달/다 + 오 ⇒ 다오	주어라
어간과 어미가 함께 훼손	‘ㅎ’ 불규칙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아’가 오면, 어간의 일부인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변하는 현상	하얗 + 아서 ⇒ 하에서 파랗 + 아 ⇒ 파래	좋 + 아서 ⇒ 좋아서 날 + 아 ⇒ 날아

문 2. 밑줄 친 단어가 다의어로 묶인 것은?

- ① 그는 의심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봄이 오니 나뭇가지에 눈이 튄다.
- ② 애가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쓴다.
어른에게는 존댓말을 써야 한다.
- ③ 어머니가 아끼시던 화초가 죽었다.
아저씨의 거칠던 성질이 요즘은 많이 죽었다.
- ④ 폭풍우가 치는 바람에 배가 출항하지 못한다.
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서 제법 무성하다.

★ 정답: ③ - 이론 문법 - 의미론 - 다의어

★ 정답 해설:

두 가지 이상의 여러 의미를 지닌 단어를 다의어라고 한다. ‘화초가 죽었다.’의 ‘죽다’는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의 뜻으로 쓰였고, ‘성질이 요즘은 많이 죽었다.’에서의 ‘죽다’는 ‘성질이나 기운 따위가 꺾이다’의 뜻으로 쓰였다. 여기서 ‘죽다’는 앞서 나온 ‘죽다’에서 의미가 확대되어 나온 말로, 둘은 다의 관계이다.

참고로 다의어는 사전에 하나의 표제어로 제시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 의미부터 의미가 확대되어 나온 주변 의미의 순서로 기술한다. 동음이의어는 서로 다른 표제어로 제시된다.

★ 오답 해설:

- ① ‘의심하는 눈으로’에서 ‘눈’은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의 뜻으로 사람의 신체 ‘눈’에서 파생된 말이다. 반면 ‘나뭇가지에 눈이 튄다’의 ‘눈’은 ‘새로 막 터져 돌아나려는 초목의 싹’으로 앞서 나온 ‘눈’과는 뜻이 다른 동음이의 관계이다.
- ②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쓴다.’에서 ‘쓰다’는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반면 ‘존댓말을 써야 한다.’에서의 ‘쓰다’는 ‘어떤 말이나 언어를 사용하다’의 뜻이다.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이다.
- ④ ‘폭풍우가 치는 바람에’의 ‘치다’는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비, 눈 따위가 세차게 뿌리다’의 의미이고, ‘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서’의 ‘치다’는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돌아 나오게 하다’의 뜻이다. 두 단어는 뜻이 다른 동음이의 관계이다.

문 3. 다음에서 설명한 공감적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는 화자와 청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교섭적 행위이다. 공감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다.

- ① 가: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나: 음, 요즘 날씨 때문에 더 그렇지?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니 속이 상하겠구나.
- ② 가: 시험 날짜가 다가오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나: 안정감을 가져 봐. 많이 지쳐서 그럴 수 있으니 며칠 쉬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 ③ 가: 계속 공부를 하니 지치는 것 같아.
나: 몸이 지치면 공부를 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고민만 하지 말고 좋은 방법을 찾아봐.
- ④ 가: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얘길 하니? 마음을 다잡고 일단 최선을 다해 봤으면 좋겠구나.

★ 정답: ① - 독해(화법) - 공감적 대화

★ 정답 해설: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라는 ‘가’의 말에 ‘나’는 ‘요즘 날씨 때문에 더 그렇지?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니 속이 상하겠구나.’ 하며 ‘가’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고 있다. 이는 진정한 공감적 듣기이다.

참고) 공감적 듣기

공감적 듣기란 감정을 이입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는 ‘너 중심 듣기’라 할 수 있다. 공감적 듣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판하거나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수용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줘야 한다.

★ 오답 해설:

- ② ‘시험 날짜가 다가오니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가’의 말에 ‘나’는 ‘많이 지쳐서 그럴 수 있으니 며칠 쉬면서 생각해 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조언을 해주었다. 이는 진정한 공감적 듣기라고 할 수 없다.
- ③ ‘계속 공부를 하니 지치는 것 같다’는 ‘가’의 말에 ‘나’는 ‘몸이 지치면 공부를 하기가 더 힘들다며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결책을 촉구한다. 이는 진정한 공감적 듣기라고 할 수 없다.
- ④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가’의 말에 ‘나’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말을 하나’며 ‘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마음을 다잡고 일단 최선을 다하라’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진정한 공감적 듣기라고 할 수 없다.

문 4.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이처럼 먼 대 먼 소통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른다.
- (나) 인간의 소통 방식 중 가장 오래되고 직접적인 것은 먼 대 먼 소통이다.
- (다) 그러나 점차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전신,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다양한 소통 방식이 가능해졌다.
- (라) 먼 대 먼 소통은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면서 음성, 몸짓, 표정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① (나) - (라) - (가) - (다)
② (나) - (라) - (다) - (가)
③ (라) - (가) - (나) - (다)
④ (라) - (나) - (다) - (가)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배열

★ 정답 해설:

(가) 먼 대 먼 소통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른다는 내용이다. ‘이처럼’을 통해 (가)에 앞서 ‘먼 대 먼 소통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인간의 소통 방식 중 가장 오래되고 직접적인 것이 ‘먼 대 먼 소통’이라고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 현대 사회에서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역접의 접속어 ‘그러나’로 시작하므로, 앞서 인간이 소통할 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에서 먼 대 먼 소통 방식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른다고 언급했으므로, (가)-(다)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②, ③, ④ 탈락

(라) 먼 대 먼 소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라는 표현을 통해 먼 대 먼 소통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라)의 ‘같은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면서’가 (가)의 ‘이처럼 먼 대 먼 소통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른다’로 연결되므로, (라)-(가)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②, ④ 탈락

따라서, (나)-(라)-(가)-(다)가 가장 자연스럽다.

문 5. 한시의 한글 풀이를 참조할 때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天高日月明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고
㉠草木生	땅이 두터우니 풀과 나무가 나도다.
春來梨花白	봄이 오니 배꽃이 하얗고
夏至㉡靑	여름이 이르니 나뭇잎이 푸르도다.
㉢黃菊發	가을은 서늘하여 누런 국화가 피고
冬寒白雪來	겨울은 차가우니 흰 눈이 내리도다.

㉠ ㉡ ㉢

- ① 至厚 木葉 科涼
② 地厚 樹葉 秋涼
③ 地后 樹葉 私諒
④ 地侯 樹草 秋涼

★ 정답: ② - 어휘 - 한자

★ 정답 해설:

㉠은 ‘땅이 두터우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地厚(땅 지, 두터울 후)가 적절하다.

㉡은 ‘나뭇잎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樹葉(나무 수, 잎 엽)이 적절하다.

㉢은 ‘가을이 서늘하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秋涼(가을 추, 서늘할 량)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至 이를 지, 后 뒤 후, 侯 제후 후

㉡ 木 나무 목, 草 풀 초

㉢ 科 과목 과, 私사사로울 사, 諒 살피 알 량

문 6. 다음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을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分別)할 줄 이시라
- (나)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뵈 아무리 일러도 임이 해어 보소서
- (다) 추성(秋城) 진호루(鎭胡樓) 밧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 (라) 뵈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 윤선도, 「견회요」에서 -

- ① (가)에서 슬프든 즐겁든 자신의 할 일만 닦을 뿐이라는 것으로 보아 화자의 강직한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자신의 잘못을 잘 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타인을 원망하기보다는 화자 스스로의 잘못을 더 뉘우치고 있군.
- ③ (다)에서 입을 향한 뜻을 밤낮 흐르는 시냇물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지닌 변함없는 연군의 심정을 느낄 수 있군.
- ④ (라)에서 아버지를 그리는 절절한 정이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 화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짐작할 수 있군.

★ 정답: ② -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일이 잘못된 줄 알지만, 그것이 모두 입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모함하더라도 임께서 해아려 달라 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임(임금)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해설:

① (가)에서 화자는 ‘슬프나 즐거오나 ~ 내 몸의 해을 일만 닦고 닦을 뿐’이라며 ‘그 밧기 여남은 일(그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감정과 그 밖의 것에 상관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강직한 태도라 볼 수 있다.

③ (다)에서 화자는 ‘주야(밤낮)’로 흐르는 시냇물을 보며, 입을 향한 자신의 뜻을 따라 그칠 줄 모른다고 하였다. 이는 입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충성을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에 비유한 것이다.

④ (라)에서 화자는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라며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다.

★ 작품 해설: 윤선도, <견회요>

- 해제: 윤선도가 권신 이이첨의 횡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서 지은 연시조이다. 신념을 굽히지 않는 정의감과 함께, 임금과 아버지를 그리는 정이 애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임금을 향한 충성심과 부모에 대한 효심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의 굳은 신념이 더욱 비장미를 느끼게 한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어버이에 대한 효성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 주제: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부모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문 7. ㉠ ~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 오류의 유형으로 ㉠ 서술어와 주어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 경우, ㉡ 서술어와의 호응이 필요한 보어가 누락된 경우, ㉢ 서술어와의 호응이 필요한 목적어가 누락된 경우, ㉣ 서술어와의 호응이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가 누락된 경우 등이 종종 관찰된다.

- ① ㉠: 내 말의 요점은 지속 가능한 기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자.
- ② ㉡: 나는 이 일의 책임자를 찾는 것보다 내가 직접 되기로 결심했다.
- ③ ㉢: 겁이 많았던 나는 혼자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못내 무서워 동행하였다.
- ④ ㉣: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의지하기도 한다.

★ 정답: ③ - 이론 문법 - 통사론 - 올바른 표현

★ 정답 해설:

‘동행하다’는 ‘같이 길을 가다’, ‘부역(賦役)에 함께 가다’는 뜻으로, 동행의 대상인 필수 부사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의 ‘나는 누구와 동행하였다.’에서 필수 부사어가 누락된 것이지 목적어가 누락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 예시로 적절한 문장이 아니다.

★ 오답 해설:

① 주어 ‘요점’에 어울리는 서술어 ‘~는 것(점)이다’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서술어 부분을 수정하여 ‘내 말의 요점은 지속 가능한 기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다.’와 같이 바꿀 수 있다.

②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다.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 ‘되다’의 보어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서술어와의 호응이 필요한 보어가 누락된 경우의 예시가 맞다. 보어를 삽입하여 ‘나는 이 일의 책임자를 찾는 것보다 내가 직접 책임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제시된 문장에서의 ‘의지하다’는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의 뜻으로 ‘...에/에게 의지하다’ 혹은 ‘...을 의지하다’와 같이 필수 부사어나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이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의지하기도 한다’의 필수 부사어인 ‘사람에게’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의 예시로 적절하다.

문 8.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神智)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듯이 덮어 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 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 사람들이 빗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 (중략) ...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써 망한 것이 아니라 ㉣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 나간 것이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밤이면서 사직(社稷)의 신에게 바치는 현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樂天)의 뼈였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서 -

- ① ㉠: 황만근은 후세에 그럴듯한 교훈을 남길 만큼 유식하지 못했다.
- ② ㉡: 황만근은 빗만 남는 농사에 고생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 ③ ㉢: 황만근은 공을 남에게 돌려 주위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했다.
- ④ ㉣: 황만근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결국 건강이 나빠졌다.

★ 정답: ② -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황만근은 사람들이 빗만 남는 농사에 뼈만 상한다고 말리는데도 개의치 않았다고 했다. 즉, 황만근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어떤 교훈도 함부로 남기지 않은 황만근의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황만근이 유식하지 못해서 교훈을 남기지 않은 게 아니다.

③ ㉢은 자신의 공이 더 클 때도 남의 공을 더 인정하고, 내세운 황만근의 겸손함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의미이다. 주위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알 수 없다.

④ 다른 사람들은 황만근이 가난한 이유를 술 때문이라고 했지만, 서술자는 황만근이 술로써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이 황만근의 힘의 근원이자 낙천의 뼈였다고 했다. ㉣은 그런 서술자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제시된 내용을 통해 황만근이 음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는지는 알 수 없다.

★ 작품 해설: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해제: 이 작품은 1990년대 후반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소박하고 우직한 인물인 황만근의 생애와 그 행적을 그린 소설이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도 열성을 다하는 황만근을 바보로 취급하지만, 작가는 오히려 황만근과 대조적인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풍자한다. 현대인들의 메말라 가는 인정을 풍자하고 암울한 농촌 현실을 고발한 이 소설은 향토적인 방언의 사용과 해학적 문체가 두드러진다.

• 주제: 관용과 도량을 가진 황만근의 생애와 그 행적,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

문 9.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하여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인코딩(encoding)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만큼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글의 코딩 방식, 다시 말해 컴퓨터에서의 한글 구현 방식은 크게 '조합형'과 '완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합형은 한글의 모든 자모(ㄱ, ㄴ, ㄷ, ㄹ ...)에다 일련의 코드를 할당하고, 이를 불러와 조합하여 글자를 구현하는 방식임에 반해, 완성형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가, 각, 간, 갈 ...) 자체에다 각각의 코드를 할당하여 그 글자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조합형으로는 한글의 구성 원리에 따라 19개의 초성, 21개의 중성, 그리고 28개의 종성을 조합하여 나올 수 있는 11,172자를 표현할 수 있다. 초기 완성형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2,350개의 글자만을 코드에 반영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똥', '뿡', '뽕'과 같은 글자는 쓸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장 완성형'이 나왔고 이어서 '유니코드 2.0'이 개발되었다. 유니코드 2.0은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11,172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모 또한 포함하여 조합까지 할 수 있다.

- ① '똥', '뿡', '뽕'과 같은 글자를 쓰려면 조합형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군.
- ② 유니코드 2.0을 사용하면 조합형 방식을 사용해 만들 수 있는 글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겠군.
- ③ 한글과 달리 영문자를 인코딩할 때에는 완성형 방식의 한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겠군.
- ④ 컴퓨터로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이미 컴퓨터에는 한글 자모나 글자 각각에 코드가 할당되어 있겠군.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지문은 한글의 코딩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컴퓨터에서의 한글 구현 방식은 크게 한글의 모든 자모에 일련의 코드를 할당하고 이를 불러와 조합하여 글자를 구현하는 '조합형'과 이미 만들어진 글자 자체에 코드를 할당하여 그 글자를 불러오는 '완성형' 방식으로 구분된다. 지문에 따르면, '똥', '뿡', '뽕'과 같은 글자는 초기 완성형에서는 쓸 수 없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장 완성형', '유니코드 2.0'이 나왔으므로, 이러한 글자도 완성형에서 구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똥', '뿡', '뽕'과 같은 글자를 조합형 방식으로만 쓸 수 있다는 추론은 적절치 않다.

★ 오답 해설:

② '유니코드 2.0은 조합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11,172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모 또한 포함하여 조합까지 할 수 있다'를 통해 유니코드 2.0으로 조합형 방식을 사용해 만들 수 있는 글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여러 가지 자모를 조합하여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인코딩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영문자의 경우 한 글자가 한 알파벳이므로, 조합형이나 완성형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완성형 방식의 한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다.

④ '조합형은 한글의 모든 자모에다 일련의 코드를 할당하고', '완성형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 자체에다 각각의 코드를 할당하여' 등을 통해 컴퓨터로 글자를 입력하기 전 이미 컴퓨터에는 한글 자모나 글자 각각에 코드가 할당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1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유지상주의자에게 있어서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될 때 정의롭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부터의 자유'인 '프리덤(freedom)'과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리버티(liberty)'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프리덤이 강제를 비롯한 모든 제약의 전적인 부제라면, 리버티는 특정한 종류의 구속인 강제의 부제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는 물리적 힘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프리덤과 리버티가 동의어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은 특정 도시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위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정부는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해당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A국 시민은 거주지 이전의 허가가 필요 없어서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물리적 저지나 위협도 받지 않는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A국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실제로 이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시민은 이사 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거나, 이사 가려는 곳에서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실현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강제와 무관하게 다른 많은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들이 두 가지 자유를 모두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제를 극소화하는 것, 특히 정부의 강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통해 얻는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 ② A국 시민들은 다양한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거주지 이전에 관한 '프리덤'을 보장받고 있다.
- ③ '리버티'에 대한 제한은 직접적인 물리적 힘보다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 ④ 개인의 행동에 대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 개인의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긍정 발문

★ 정답 해설:

지문은 '계약으로부터의 자유'인 프리덤과 '강제로부터의 자유'인 리버티의 개념을 구분하며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지문의 예시를 통해, 리버티는 '국가로부터의 강제'와 연결되고, 프리덤은 국가로부터의 강제는 물론 국가의 강제와 무관한 자유의 제한까지 포함하는 '모든 방식의 자유의 제한'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지문에 따르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제를 극소화하고, 리버티를 극대화하는 것, 특히 정부의 강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만약 개인의 행동에 대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국가로부터의 강제이므로, 이때 그 개인의 '강제로부터의 자유', 즉 리버티가 제한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마지막 문단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강제를 극소화하는 것, 특히 정부의 강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통해 얻는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를 통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최대한 확보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② A국 시민들은 거주지 이전의 허가가 필요 없어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물리적 저지나 위협도 받지 않는다. 이때 A국 시민들은 '리버티'를 보장받는 것일 뿐, 다른 이유로 A국 시민들의 프리덤이 제한될 수 있다. 돈이 없는 등의 이유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A국 시민의 사례가 그 예시다.

③ 첫째 문단의 '일반적으로 강제는 물리적 힘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거나 피해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를 통해 리버티에 대한 제한은 직접적인 물리적 힘이나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직접적인 물리적 힘보다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지는 알 수 없다.

문 11.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등인은 법을 사랑하고, 중등인은 법을 두려워하며, 하등인은 법을 싫어한다. 법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범하기 부끄러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를 범하기 싫어하지만, 법을 싫어하는 자는 이를 범하기 부끄러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기회만 만나면 하고 싶은 대로 저절로 거리끼는 것이 없다. 그가 다만 죄를 저지르지 않는 까닭은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처지가 그럴 수 없기 때문이지, 그의 심사가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법률상 인품을 논의하여 세 등급으로 구별한 것은 후천적인 학식의 환경과 지각의 계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은 ()

- ①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
- ②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데 있다.
- ③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 교화에 힘쓰는 데 있다.
- ④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 계층 통합에 힘쓰는 데 있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빈칸 추론

★ 정답 해설:

지문은 법을 사랑하는 '상등인', 법을 두려워하는 '중등인', 법을 싫어하는 '하등인'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문에 따르면, 이러한 법률상 인품의 구별은 '후천적인 학식의 환경과 지각의 계층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며,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즉, 지문의 핵심은 후천적으로 법률상 인품이 변화될 수 있으며 교화를 더 넓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문은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 잡는 방법은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 교화에 힘쓰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문 12.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승(女僧)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냇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니 산 깊은 금점(金店)관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평도 설계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
이 있었다

- 백석, 「여승」 -

- ①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어린 딸아이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형식 이해

★ 정답 해설: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여승'의 인생을 역순행적(2연→3연→4연→1연)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시상에 입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 여인의 비극적 생애를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순행적으로 시상이 전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가지취', '산', '섣별', '산평', '산절'과 같은 토속적 시어를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3연의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를 통해 딸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2연의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를 통해 공감각적 표현(청각의 촉각화)으로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작품 해설: 백석, <여승>

- 해제: 이 시는 일제 강점기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한스런 삶을 그린 작품이다. 한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삶을 서술함으로써,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주제: 가족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 구성
 - 1연: 여승과 화자의 재회(현재)
 - 2연: 화자와 여인의 첫 만남(과거)
 - 3연: 여인의 비극적인 삶(과거)
 - 4연: 세상을 등지고 여승이 되는 여인(과거)

문 13.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로컬푸드(local food)는 일차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의미한다. 로컬푸드를 물리적 거리로써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좁게는 반경 50km, 넓게는 반경 100km의 농촌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지칭하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로컬푸드가 이 정도의 물리적 거리나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의 농식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의 경우 넓게는 반경 160km 정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으로까지 확대하기도 한다. 이는 생산·유통·소비에 있어서 건강성, 신뢰성, 친환경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한 것이다.

로컬푸드가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하는 것이 라면, 로컬푸드 운동은 친환경적이고 자립적이며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생산·유통·소비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노력을 일컫는다. 농업의 해체와 식품 안전성의 위기가 만나는 접점은 로컬푸드 운동이 발아하는 배경이 된다. 전통적인 농업은 관련 인구 감소, 농촌 경제 영세화, '종자에서 식탁까지' 지배하는 거대자본의 위협을 받고 있다.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식품은 물론 자연환경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건강한 소비를 연결하고, 나아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대안적 공동체 운동으로 선순환시키려는 노력이 로컬푸드 운동으로 나타났다.

- ① 로컬푸드의 범위는 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서 규정될 수 있다.
- ② 식품 안전성에 주목하는 로컬푸드 운동은 환경보호 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③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전략으로 해당 지역에서 산출되는 로컬푸드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역 농가가 거대자본에 의존하여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일 수 있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지문은 로컬푸드와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지문에 따르면, 로컬푸드 운동은 농업의 해체와 식품 안전성의 위기가 만나는 접점에서 발아했다. 지문은 농업의 해체와 관련해 '관련 인구 감소, 농촌 경제 영세화, '종자에서 식탁까지' 지배하는 거대자본의 위협'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거대자본이 농업의 해체를 야기했으며, 로컬푸드 운동은 이러한 농업의 해체를 막고자 함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농가가 거대자본에 의존하려는 시도는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해설:

- ① 지문에 따르면, 로컬푸드는 주로 반경 50km에서 100km의 농촌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지칭하곤 하나, '생산·유통·소비에 있어서 건강성, 신뢰성, 친환경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해 그 범위가 변화될 수 있다. 즉, '생산·유통·소비' 등 경제적 요소도 로컬푸드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고려됨을 알 수 있다.
- ② 둘째 문단의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식품은 물론 자연환경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 대안적 공동체 운동으로 선순환시키려는 노력이 로컬푸드 운동으로 나타났다.'를 통해 식품 안전성에 주목하는 로컬푸드 운동은 환경보호 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님을 알 수 있다.
- ③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건강한 소비를 연결하고, 나아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을 통해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전략으로 해당 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문 14. ㉠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른바 규중 칠우는 부인네 방 가운데 일곱 벼이니 글하는 선배는 필묵과 조희 벼루로 문방사우를 삼았나니 규중 녀젠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오.

이러므로 침선(針線)의 돕은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벼를 삼을 새, 바늘로 세요 각시라 하고, 침척(針尺)을 척 부인이라 하고, 가위로 교두 각시라 하고, 인도(引刀)로 인화 부인이라 하고, 달우리로 올 낭자라 하고, 실로 청홍흑백 각시라 하며, 골모로 감토 할미라 하여, 칠우를 삼아 규중 부인네 아침 소세를 마치매 칠위 일제히 모혀 종시하기를 한가지로 의논하여 각각 소임을 일워 내는지라.

일일은 칠위 모혀 침선의 공을 의논하더니 척 부인이 긴 허리를 자하며 이르되, ... (중략) ...

인화 낭제 이르되,

㉠ “그대네는 다토지 마라. 나도 잠간 공을 말하리라. 미누비 세노비 놀로 하여 저가락같이 고으며, 혼술이 나골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으리요. 침재(針才) 용숙한 재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내의 손바닥을 한번 씻으면 잘못된 혼적이 감초여 세요의 공이 날로 하여 광채 나나니라.”

-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에서 -

- ① 풍자적 표현을 통해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지켜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 ③ 자신의 도움을 통해 상대방이 빛날 수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 ④ 상대방 말의 허점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 화법

★ 정답 해설:

㉠은 바느질이 바르지 못한 것을 곱게 보이게 해주는 것이 모두 자신(인화 부인)의 도움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은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화 부인이 자신의 공을 자랑하는 부분이다.
- ② ㉠은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신이 채워준다는, 인화 부인의 자랑이다.
- ④ ㉠에서 상대의 말의 허점을 부각해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고, 자신의 공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있다.

★ 작품 해설: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

• 해제: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한글 수필로, 규방 부인이 침선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척 부인(자), 세요 각시(바늘), 교두 각시(가위), 청홍 각시(실), 인화 부인(인두), 올 낭자(다리미), 감토 할미(골무)로 의인화하여 인간 세상의 처세술을 드러내며 풍자하고 있다. 규중 칠우는 의복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과 관련해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데, 도구의 모양이나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찰력이 돋보인다. 규중 칠우를 조선조 규방 여인들을 의인화한 존재로 본다면, 자신의 능력과 노고를 인정받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내포한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

• 주제: 역할과 직분에 맞는 삶에 대한 인식과 추구

• 전체 줄거리: 규중 부인이 잠든 사이 칠우는 제각기 자신의 공을 늘어놓으며 다투는데, 부인에게 꾸중을 듣게 되자, 이번에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부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 잠에서 깬 부인이 이를 꾸짖자 감토 할미가 나서서 사죄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그 공을 인정받게 된다.

문 15.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한국 아이스하키가 북한을 제압,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국 팀은 13일 쓰키사무 실내 링크에서 벌어진 동계 아시안게임 아이스하키 최종 경기에서 북한을 6 대 5로 제치고 1승 2패를 마크, 일본 중국에 이어 3위에 입상했다.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한국 팀은 이날 필승의 정신력으로 푼푼 뭉쳐 1퍼리어드 초반부터 파상적인 공격을 퍼던 중 3분쯤 첫 골을 성공시키면서 기세를 높였다.

(나) 아이스하키 남북 대결에서 한국이 예상을 뒤엎고 6 대 5로 승리, 동계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팀은 13일 삿포로 쓰키사무 실내 링크에서 열린 북한 팀과의 경기에서 초반 수비 치중에 기습 공격 작전이 적중하면서 승세를 타기 시작, 한차례의 동점도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끝냈다. 한국 팀은 이로써 북한 팀과의 대표 대결에서 3승 1패로 앞섰다.

- ① (가)는 ‘제압’, (나)는 ‘승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나)는 (가)보다 경기 결과를 객관적인 태도로 표현했어.
- ② (가)는 ‘필승의 정신력으로 푼푼 뭉쳐’, (나)는 ‘수비 치중에 기습 공격 작전이 적중하면서’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는 (나)보다 선수들의 의욕을 강조했어.
- ③ (가)는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나)는 ‘예상을 뒤엎고’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와 (나) 모두 경기 전에 한국 팀의 실력이 북한 팀의 실력보다 낮게 평가되었음을 표현했어.
- ④ (가)는 ‘3위에 입상했다’, (나)는 ‘동메달을 획득했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와 (나) 모두 아쉬운 경기 결과였음을 강조했어.

★ 정답: ④ - 독해(작문) - 표현하기

★ 정답 해설:

(가)는 ‘3위에 입상했다’, (나)는 ‘동메달을 획득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객관적 사실을 나타낸 것일 뿐, 아쉬운 경기 결과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제압’이라는 말을 사용해 ‘위력이나 위엄으로 세력이나 기세 따위를 억눌러서 통제하’는 느낌을 주었고 (나)에서는 ‘승리’라는 말을 사용해 경기에서 드러난 사실(승리)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나)의 ‘승리’는 (가)의 ‘제압’보다 경기 결과를 객관적인 태도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는 ‘필승의 정신력으로 푼푼 뭉쳐’라는 말을 사용해 선수들의 의욕을 강조하였으며 (나)는 선수들의 의욕을 강조하기보다는 ‘수비 치중에 기습 공격 작전이 적중하면서’라는 말을 사용하여 경기 내용을 객관적으로 표현하였다.
- ③ (가)는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나)는 ‘예상을 뒤엎고’라는 말을 사용하여 (가)와 (나) 모두 경기 전에는 한국 팀의 실력이 북한 팀의 실력보다 낮게 평가되었음을 표현하였다.

문 16.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세기에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은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싶은 욕망과 윤리적·도덕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 나를 위해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부수적으로 어떤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지 확실히 따져 보는 것,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행동이 생태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욕망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결합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이기적 이타주의의 자세이다.

우리는 자급심을 충족하려는 과시적 소비가 이끌었던 소비의 시대에서 더 신중하게 소비하는 이기적 이타주의 시대로의 점진적 전환을 맞고 있다. 이미 몇 세대에 걸쳐 과시적인 소비를 경험했기에 사람들은 쇼핑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흥미로운 물건을 사는 기쁨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쇼핑이라는 탐험이 사회와 생활 방식에 제공하는 혜택은 많은 사람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자급심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 또한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금보다 쇼핑을 줄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소비 패턴과 품목은 가치관과 태도 변화와 함께 바뀔 것이다.

과시적인 소비는 자급심을 향한 인간의 욕구로 주도되었지만 사람들은 이런 소비가 가진 함의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기적 이타주의는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지나치게 동정심이 많아지거나 비정한 자본주의자에서 사회복지사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구매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갑자기 옮겨 가지도 않는다.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고 어떻게 구입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 ① 이기적 이타주의 시대에도 소비의 시대와 비교하여 적지 않은 쇼핑 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군.
- ②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을 뜻하는 가성비에 집착한 구입이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아닐 것 같군.
- ③ 동물 보호를 위해 가축제품보다 면제품을 사는 경우도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의 예에 해당될 것 같군.
- ④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필요보다 사회적 영향을 더 고려해서 물건을 구매할 것 같군.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셋째 문단에서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소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필요와 사회적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지, 사회적 영향을 더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해설:

- ① 둘째 문단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쇼핑을 줄일 것 같지는 않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는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싶은 욕망과 윤리적·도덕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소비로, '가성비에 집착한 구입'은 사회의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라 볼 수 없다.
- ③ 첫째 문단에서 이기적 이타주의의 자세는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행동이 생태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동물 보호를 위해 가축제품보다 면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이기적 이타주의 소비의 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문 17.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관소리 사설은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계층의 청중들을 상대로 하여 ()으로 발달한 까닭에 언어의 층위가 매우 다채롭다. 그 속에는 기품 있는 한문 취미의 대목이 있는가 하면 극도로 익살스럽고 노골적인 욕설·속어가 들어 있으며, 무당의 고사나 굿거리 가락이 유식한 한시구와 나란히 나오기도 한다. 이 밖에 민요, 무가, 잡가 등 각종 민간 가요가 관소리 사설 속에 많이 삽입되었다.

- ① 골계적(滑稽的)
- ② 연행적(演行的)
- ③ 우화적(寓話的)
- ④ 적층적(積層的)

★ 정답: ④ - 독해(문학) - 문학 이론

★ 정답 해설:

빈칸에는 '언어의 층위가 매우 다채로워진 까닭'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관소리는 평민 문학으로 시작하여 양반까지 향유한 구비 문학으로 '적층(積層) 문학'이라고도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여러 계층이 쌓여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담아 '적층적(積層的)'이 들어가야 한다.

★ 오답 해설:

- ① '골계(滑稽)'는 '익살을 부리는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일'로, 웃음으로 눈물 닦기처럼 슬프고 부정적 현실을 외면하고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기법을 말한다. 관소리 사설에 골계적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다층성의 원인은 골계가 아니다.
- ② '연행(演行)'은 배우가 연기를 하거나 연출로 행함이라는 뜻으로 빈칸에는 적절하지 않다.
- ③ '우화(寓話)'는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빈칸에 적절하지 않다.

문 18.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토록 찾던 그 친구를 오늘 우연찮게 길에서 만났다.
- ② 당시 변변한 직업이 없던 그는 어디든 취업하길 바랐다.
- ③ 칠칠치 못하게 그 중요한 문서를 아무 데나 흘리고 다니느냐.
- ④ 친구가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니 나까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 정답: ④ - 어문 규정 - 표준어 규정 + 한글 맞춤법

★ 정답 해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이라는 뜻의 부사 '안절부절'을 활용한 동사형으로 '안절부절하다'가 아닌 '안절부절 못하다'를 쓴다.

★ 오답 해설:

- ① 한글 맞춤법 제39항에 따라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우연하지 않게'는 '우연찮게'로 줄여 적는 것이 옳다.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적지 않은	적잖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두렵지 않다	두렵잖다	오죽하지 않다	오죽잖다
허술하지 않다	허술잖다	울곤지 않다	울곤잖다
달갑지 않다	달갑잖다	당하지 않다	당찮다
마뜩하지 않다	마뜩잖다	편하지 않다	편찮다
시답지 않다	시답잖다		

‘-지 않-’, ‘-치 않-’이 한 개 음절로 줄어드는 경우는 모두 ‘잖, 찹’으로 적도록 하였다.

② 형용사 ‘변변하다’는 ‘제대로 갖추어져 충분하다’, ‘지체나 살림살이가 남보다 떨어지지 아니하다’는 뜻으로 쓰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다. 형용사 ‘변변찮다’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부족한 점이 있다’는 뜻으로 뒤의 ‘없던’과 결합하여 사용하면 문맥상 어색하므로 ‘변변한’을 쓰는 것이 옳다.

③ ‘칠칠하다’는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는 뜻으로 ‘칠칠하지 못하다’, ‘칠칠하지 않다’와 같이 쓰일 때는 ‘일 처리가 야무지지 못하다’는 뜻이 된다. 제시된 문장에서 ‘중요한 문서를 아무 데나 흘리고 다’닌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칠칠치 못하게’라는 표현은 적절하다. ‘칠칠맞다’는 ‘칠칠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칠칠맞지 못하게’라는 표현도 이 문장에 쓸 수 있다.

문 19. 밑줄 친 부분의 문법적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내가 어제 책을 산 서점은 우리 집 옆에 있다.
- ② 저는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 ③ 그 화가는 붓을 놓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 ④ 햇불을 추켜든 사람들이 골짜기를 살살이 뒤졌다.

★ 정답: ② - 이론 문법 - 통사론 - 문장의 짜임새

★ 정답 해설: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난’은 ‘만나다’의 어간 ‘만나-’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관형절이다.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문장은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난’이 ‘기억’을 수식하는 동격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참고)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

· 관계 관형절: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과 그 관형절 안의 문장 성분이 일치할 때 그 성분을 생략한 관형절이다.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의 한 성분(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이 되는 경우이다. 어떤 명사 앞에 서든 쓰일 수 있다.

· 동격 관형절: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의 내용이 된다. 이러한 명사류(소문, 생각, 주장, 제안, 사실, 인상, 기억, 일 등)들은 문장에서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용이 되는 동격 관형절과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오답 해설:

① ‘내가 어제 책을 산’은 ‘사다’의 어간 ‘사-’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붙어 이루어진 관형절이다. ‘내가 어제 책을 샀다.’ 안에는 부사어 ‘서점에서’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③ ‘이마에 흐르는’은 ‘흐르다’의 어간 ‘흐르-’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결합한 관형절이다. ‘이마에 흐르다.’ 안에 생략된 주어 ‘땀’이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와 같은 관계 관형절이다.

④ ‘햇불을 추켜든’은 ‘들다’의 어간 ‘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결합한 관형절이다. ‘햇불을 추켜들다.’ 안에 생략된 주어 ‘사람들이’가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와 같은 관계 관형절이다.

문 20.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공정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사용된다. 우리는 종종 어떤 법적 판단에 대해 공정성을 묻기도 하고,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단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묻는다. 공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판단의 결과가 가능한 결과들 중 일부분으로 특별히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은 ‘공평성’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 조건은 ‘독립성’으로, 이는 관련된 판단들이 외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성의 두 조건은 동전 던지기 게임을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게임의 규칙은 동전을 던져 뒷면이 나온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해 보자. 이 게임이 공평하다는 것은 동전 던지기를 충분히 여러 번 진행했을 때의 가능한 결과, 즉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는 것을 말한다. 공평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게임의 공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독립성이 공정성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전 던지기 게임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의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만일 게임에 사용된 동전이 특별한 외부 장치에 의해 조작되어서 앞면이 두 번 나온 뒤에는 항상 뒷면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두 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온 뒤에 게임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전략을 채택한 사람은 언제나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전이 외부 장치에 의해 조작될 경우에는 항상 게임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언제나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임은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독립적이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보 기>—

- ㄱ.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없는 동전 던지기 게임은 독립적이다.
- ㄴ. 앞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앞면이 나오도록 장치가 된 동전 던지기 게임은 공평하지 않다.
- ㄷ. 동전 자체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의 차이가 클 때, 그 동전을 이용한 동전 던지기 게임은 공정하지 않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사례 추론

★ 정답 해설:

지문은 ‘공평성’과 ‘독립성’이라는 개념으로 ‘공정성’을 설명하며, ‘동전 던지기 게임’을 예시로 들고 있다.

ㄱ.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동전 던지기 게임’은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의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독립적이라고 하였다. 동전이 외부 장치에 의해 조작될 경우에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그런 장치를 하지 않는다면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아무 장치도 하지 않은 동전 던지기 게임은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없는 독립적인 게임이다.

ㄷ. 동전 자체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의 차이가 크다면, 이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정하지 않다.

★ 오답 해설:

ㄴ. 앞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앞면이 나오도록 장치가 된 ‘동전 던지기 게임’은 독립적이지 않아 공정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게임을 충분히 여러 번 진행하면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거의 같을 것이므로, 공평하다고는 할 수 있다.